

■ 美 신용등급 강등 후폭풍... 금융시장 패닉

# 외풍에 약한 한국, 불안감 날로 확산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한국 증권시장에 '블랙먼데이'를 불러온 지난 8일에 이어 9일에도 주식시장을 '패닉' 상황으로 몰고 갔다.  
6일 만에 코스피 시가총액은 209조 원이 증발했고, 원·달러 환율은 1088 원까지 치솟았다.  
금융시장 전반이 불투명해 회복 전망마저 가능하기 힘든 상황이다.



### 휴~ 1800은 지켰다

9일 주식시장은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한 끝에 코스피지수가 68.10P(3.64%) 내린 1,801.35로 장을 마쳤다. 시진은 9일 오후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 장중 1700도 붕괴...6일간 370.96P 빠져



주가

미국 신용 등급에 따른 충격은 국내 금융시장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9일 오전장에서 코스피가 10% 가량 폭락하고 환율은 1090선 중반까지 치솟았으나 장 후반 들어 급락·급등세는 일부 진정됐다. 그럼에도 한국 증시는 아시아 주요 증시 중에서 하락폭이 가장 커 외부 충격에 취약한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9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68.10포인트(3.64%) 내린 1801.35로 장을 마감했으며 오전 환율 1684.68까지 내려갔다. 하락폭은 184.77포인트(9.88%)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를 연속

사이드카(5분간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오후 들어 반등을 시도한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넓혀갔다. 장 후반에 100포인트 넘게 오르며 1800선을 가까스로 지켰다. 외국인 인은 이날 하루 1조1757억원 순매도했다. 9일 코스피 1700선이 장중 붕괴되는 등 이를 연속 전세계 곳곳의 주식시장이 대폭락하자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각 기업은 각국 증시가 돌아가며 대폭락 장세를 연출하자 2008년말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의 재연이 우려되면서 비상 경영 국면으로 전환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현 사태에 가장 노출초사하는 측은 대형 M&A를 위해 당장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들이다. CJ그룹은 대한통운 인수 자금으로 2조10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리먼사태 재연되나...기업들 비상경영 고려



산업

9일 코스피 1700선이 장중 붕괴되는 등 이를 연속 전세계 곳곳의 주식시장이 대폭락하자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각 기업은 각국 증시가 돌아가며 대폭락 장세를 연출하자 2008년말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의 재연이 우려되면서 비상 경영 국면으로 전환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현 사태에 가장 노출초사하는 측은 대형 M&A를 위해 당장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들이다. CJ그룹은 대한통운 인수 자금으로 2조10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닉스 인수전에 뛰어들던 STX는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건설 업체들도 금융·증권 시장의 불안으로 향후 주택분양 사업과 기업 인수작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초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공격적인 투자 확대에 나섰던 기업들도 현사태를 우려적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주요 판매 시장인 미국, 유럽의 경제 사정 악화가 매출 감소로 이어질까봐 우려하면서 주요 시장 동향 및 경제 지표 모니터링에 주력하고 있다.

## 6거래일 연속 상승...1900원선 바짝



환율

원·달러 환율이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090원선에 바짝 다가갔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9일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60원 오른 1088.1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가는 1090.00원이었다. 환율은 코스피 지수 급락 여파로 개장과 동시에 1090원선 위에서 출발했다. 환율은 이후 코스피지수가 전일 대비 10%

가까이 폭락하자 이에 맞춰 상승폭을 확대하며 전 1096.10원까지 올랐다. 코스피는 미국발 충격에 이어 중국이 소비자물가(CPI) 급등으로 경기부양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우려를 갖기 시작한 전망이 나오면서 나뭇잎을 확대, 환율에 상승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환율은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 조치에 따라 호주 증시 상승, 유로화 상승 등에 힘입어 오후 들어 상승폭을 축소했다. 여기에 코스피까지 낙폭을 축소하면서 환율은 상승폭을 점차 줄여나갔다.

## 금융위장 "기관이 시장수호 나서달라"



정부대책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급격히 불안해진 금융시장을 '비상상황'에 빚대어 장기전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기관들이 시장수호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융위 직원들의 존재이유는 비상사태 지금에 있다"며 "이제는 전선의 군인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책임성과 과단성있게 조치를 취해달라.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황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의 연장선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은행의 외화유동성 문제와 관련, 유럽에서 36%, 미국에서 28%, 아시아에서 35%를 조달하는 현재의 외화차입 구성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장·단기 외채만 갖고 고민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 더 큰 타격을 준 시장불안에 대해 금융위가 잘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 상장기업 3조2466억원 증발

코스피 -21.41 코스닥 -22.54% 기록

9일 코스피 1700선이 장중 한때 붕괴되는 등 지난주부터 시작된 국내 주식 시장 대폭락에 광주·전남에 연고 둔 상장기업들도 주식총액이 크게 줄었다. 이날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 분사를 둔 14개 코스피 상장기업과 9개 코스닥 상장기업 모두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7거래일 동안 평균 주식 등락률은 -21.41%, -22.5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7거래일 동안 14개 지역 코스피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3조2466억원이 증발했으며 9개 코스닥 상장기업의 시가총액도 2857억원이 사라졌다. 코스피 상장기업 중 가장 등락폭이 큰 기업은 대우에이텍으로 7거래일

간 27.18%가 빠졌다. 지난 1일 종가 기준 3090원 하던 주식은 7일 만에 2250원으로 떨어져 1425억원이 그새 증발했다. 금호산업(-26.27%), KPX 화인케미칼(-25.98%), 로케트 전기(-25.20%), 화천기공(-24.34%)도 낙폭이 컸다. 코스닥에서는 행남자기가 35.07% 급락, 1일 종가 기준 5190원의 주식이 3370원까지 떨어져 7거래일 간 203억원이 사라졌다. 파루(-33.63%), KPX생명과학(-25.53%), 서산(-24.92%)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코스피는 2172.31에서 1801.35로 370.96(-17.08%)포인트가 빠졌고 코스닥은 544.39에서 432.88로 111.51(-20.48%)포인트가 떨어졌다. /임동률기자 exian@

## 매곡동 이마트 허가 취소절차 돌입

북구청, 18일 건축주 청문 실시

광주시 북구청이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절차에 들어갔다. 9일 북구청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결정을 받아들여 오는 18일 건축주를 불러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을 하기로 했다. 북구는 예초 허가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한 뒤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또 광주시 감사결과대로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3명은 징계, 설계자는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행정·손해배상 소송이 이뤄질 수도 있다. /임동률기자 exian@

이마트 관계자는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곡동 이마트 부지는 삼월리제코리아가 1년 가까운 행정소송 끝에 지난해 11월 말 구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해당 부지 등은 부동산 개발회사를 거쳐 이마트에 넘어갔다. 광주시는 최근 북구 주민 131명의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건축물은 용도지역과 맞지 않고, 견제율과 용적률을 속이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건축 허가를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전남신보, 태풍 피해기업 재해특례보증

전남신용보증재단은 태풍 '미미'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집중호우 피해기업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남신보는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기본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최고 5000만원(단,제조업은 1억원)까지 복구자금으로 지원한다. 또 이 보증에 대해서는 일반보증료의 절반 수준인 0.5%의 보증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

서 전액보증 하기로 해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고, 심사절차도 간소화시킬 계획이다. 이번 특례보증의 대상기업은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이며 재해 발생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받았거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당해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옛날방식 그대로**

어머니의 손맛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여름철 고객님의 맛과 건강을 위해 銀江이 혼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얼나무 삼계탕**

옛날방식 그대로 모든 음식을 어머니의 고집대로 우직하게 재래식방법을 고집하고 있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단계 높은 한정식 먹거리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닭장 떡국 ● 굴국밥

**銀江 한정식**

동구 장동 51-4 (전남여고후문-북계도로)

예약전화. 062. 227. 5986 · 4986